

## 발레처럼 멋지게, 부부 로타리안으로 따뜻한 동행 서울아미RC 제임스전 교수와 김인희 예술감독



**발레**가 먼 나라 이야기이던 시절, 우리에게 발레를 소개하고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준 선구자 가운데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다. 그 열정만큼이나 사는 모습이 아름답고 멋지다. 유니버설발레단·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의 러브 스토리로 화제가 됐고 1987년부터 부부 무용가로 한길을 걸어온 지 30년이 흘렀다. 로타리안으로는 김인희 예술감독이 선배, 여성 클럽이던 서울아미로타리클럽이 2015년 남녀혼성 클럽으로 바뀌자, 김 전회장이 부군의 손을 잡아끌어 부부회원이 됐다.

우리나라 발레무용계의 두 별이 예술 동지로서, 로타리 동반자로서 다시 또 엮혔으니 천상 '바늘과 실'이다. 게다가 김 전회장은 언니(김순희 회원)도 영입해 4년째 같이 활동하고 있다. 부부와 자매 로타리안으로 '패밀리 투게더'를 이루었다. 김 전회장은 제임스전 교수와 함께 창단했던 서울발레시어터 단장을 맡아오다가 2년 전 20주년을 기해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발레STP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모교 선화예술중고교 발레부 예술감독으로 부임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. 1995년부터 서울아미로타리클럽에서 활동하며 클럽회장뿐만 아니라 지역대표, 사무부총장 등 지구 임원으로도 활발히 참여한 바 있다.

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중인 "차이콥스키 발레 스페셜 갈라"가 끝난 늦은 시간에 인터뷰했다. '예전과 같이 열심히 하지

못해 늘 회원들에게 미안하다'는 김 전회장은 '공연과 강의, 새로운 업무로 주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공연장까지 응원하러 온 다든가, 행사 일정을 조정해주는 아미 회원들의 배려에 죄송하고 고마울 따름'이라고 말한다. 강단과 무대를 오가며 일인다역을 하고 있는 전 교수는 최근 한국체육대 로타랙트 창립과 사랑의 캠프 같은 봉사활동에서 큰 몫을 했다. 미국 줄리아드대학, 모나코 왕립발레학교를 나온 전 교수와 김 예술감독, 발레 대중화와 창작발레의 새 지평을 열어온 이들 '열정 부부'가 이제는 '봉사인'으로 손잡고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다.

